

BTS 새 공식 '7÷7=7'... 개별활동, 2025년 완전체 재개 시너지

만형 진, 입대 시작으로 약 3년간 군복귀 예상 플랫폼·게임 등 엔터 외 다른 사업 영역도 확대

“방탄소년단이 만형 진의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미국 CNN)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첩터 2를 열었다. 만형 진(30·김석진)이 지난 13일부터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개별 활동 병행이 본격화(本格化)됐다.

2013년 데뷔해 올해 9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은 K팝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팝 슈퍼스타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6개의 앨범을 올렸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최근 10년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다. 이 기간에 6곡을 '핫 100' 정상에 올렸다. '다이너마이트(Dynamite)'(3회)로 한국 가수 최초 '핫 100'(2020년 9월 5일 자) 1위에 오른 뒤 같은 해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1회)과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1회)도 정상에 올려 놓았다.

작년엔 '버터(Butter)'(10회)와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1회), '폼드플레이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1회)까지 방탄소년단은 여섯 곡으로 총 17회 '핫 100' 정상을 찍었다. '핫 100' 역사를 통틀어 진입과 함께 1위로 직행한 '핫샷' 데뷔곡 보유 순위에선 2위다. 피쳐링 곡인 '새비지 러브' 리믹스를 제외한 나머지 곡 모두가 '핫 100'에 1위로 데뷔한 것이다. 또 방탄소년단은 10곡 이상을 빌보드 '핫 100' 톱10에 올렸다.

또 내년 2월 열리는 '제65회 그래미 어워즈'까지 3년 연속 이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됐고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에선 대상을 받았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첩터 2는 지난 2020년 2월 발매한 정규 4집 '랩 오브 더 솔 : 7' 활동 직후였다. 이 음반 활동 직후 입대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를 시발점으로 계획이 수정되거나 없던 계획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입대 시기가 늦어졌다. 음반 타이틀 중 '7'은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해도 팀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지난 7월 제이홉의 첫 솔로 정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로 시작된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증명한다. '7÷7=7'이 아니라 '7÷7=7'이 될 수 있음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증명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아닌 각자 이름을 내걸고 솔로로서도 역량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전 결국 근간인 방탄소년단으로서 수렴되는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제이홉은 '잭 인 더 박스'와 타이틀곡 '방화(Arson)'로 '빌보드200'과 '핫100'에 각각 17위와 96위로 동시 진입하는 기록을 썼다.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또 미국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의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RM 역시 최근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와 타이틀곡 '들꽃놀이(with 조유진)'로 '빌보드 200'과 '핫100'에 각각 15위와 83위로 동시 진입했다. 특히 '미술 애호가'인 RM은 천진무구한 성품(性品)에서 '영원불변한 예술'을 추구한 고(故) 윤형근(1928~2007) 화백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어 기존 아이돌과는 다른 색깔의 앨범을 보여줬다. 에라카 바두, 김사월, 박지윤 등 협업 뮤지션들의 면면도 방탄소년단과는 다른 궤적을 보여줬다.

특유의 친근한 매력은 자랑하는 진은 입대 직전까지 SBS TV '런닝맨', 래퍼 이영지의 웹 토크 예능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등에 출연하며 팬들과 적극 소통했다. RM 역시 tvN 지식 예능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학사전'(이하 '알쓸인잡') MC, 웹 예능 '피식쇼' 등에 출연하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

다른 멤버 슈가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체 토크 콘텐츠 '슈퀴타'를 론칭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 사이에서 '민PD'라 불리는 슈가는 또 다양한 프로듀싱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팀 내 두 번째가 나이가 많은 슈가는 내년 안에 군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다.

프랑스 파리에 열린 패션쇼 등에 참석하며 화려한 외모를 뽐낸 뷔(V·김태형)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 연기 활동이 예상되는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이 팀의 멤버 중 유일하게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다. 2016년 KBS 2TV 드라마 '화랑'에서 막내 화랑 '한성' 역을 맡아 '연기자 김태형'으로서 신고식을 치렀다. 정국은 믹스테이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특히 정국은 최근 '2022 카타르 월드컵' 주제곡 '드림머'를 불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K팝 가수 중 처음으로 다른 나라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도 오르는 기록을 썼다. 춤에 능한 지민은 음악뿐만 아니라 깜짝 프로젝트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내년 초 그룹 '빅뱅' 멤버 태양이 발매 예정인 솔로 앨범에 피쳐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대할 뒤 약 3년의 단체 활동 공백을 가지고 2025년에 다시 완전체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멤버들이 대거 입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 후에도 국악이나 공익 목적의 무대가 있을 경우, 본인들이 참여를 희망하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이벤트성으로 완전체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도 일부 있다.

특히 멤버들이 모두 군복무를 하면 장수 그룹의 발판을 다지게 된다. 국방부의 의무를 지고 나면 팬덤 아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명실상부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이그룹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예년 만큼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선례가 됐지만 세계적으로 위상을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은 충분히 다른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 미국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국민가수 나훈아·남진이 군대를 다녀온 뒤에도 인기를 이어간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 10일 부산콘서트에서 30,40년 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군 입대로 인한 공백을 당연히 거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또 다른 앞날을 기약한 것이다. 아미들도 충성도를 충분히 보여줬다. 애초 진이 입소한 경기 연천의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대거 팬들이 몰려



것으로 예상했으나 진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안전과 다른 장비들을 위해 방문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하자 해외 일부 아미를 제외하고 이를 대다수가 따르는 성숙한 팬문화를 보여줬다.

◆하이브, 다른 아티스트들 적극 발굴

다만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에서는 단체 활동 공백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멤버들이 개별 활동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단체 활동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체 활동의 공백이 생기는 '군백기'(군대+공백기 합성어) 동안에 사전에 준비해 둔 다양한 팀 콘셉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스페셜 음원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강조하는 건 멀티 레이블 전략이다. 하이브 산하 9개의 독립 레이블을 통해 활동 중인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지코, 프로미스나인, 그리고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해외 팝스타 라인업이 만만치 않다는 자신감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9개월 만인 내년 1월 미니 5집을 발매한다. 얼마 전 솔로 앨범을 발매한 뉴진스 출신 백호에 이어 역시 이 팀 출신인 황민현도 솔로 앨범을 내놓는다. 세븐틴과 프로미스나인 또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레이블인 플래디스는

신인 보이그룹 데뷔를 위한 계획들을 진척시키고 있다.

엔하이픈은 내년 초까지 해외 투어를 한 뒤 새로운 앨범을 선보인다. 엔하이픈이 속한 레이블이자 하이브와 CJ ENM이 합작한 빌리프랩은 내년에 두 번째 팀을 선보인다.

단순히 하이브를 대표하는 두 걸그룹인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각각 레이블인 르세라핌과 어도어는 내년에 선의 경쟁을 한다. 대세 걸그룹이 된 르세라핌은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투어를 돈다. 신드롬을 일으킨 뉴진스는 내년 1월2일 새 싱글 'OMG'를 내놓는다.

이브 박지원 대표이사(CEO)는 지난 10월 주주총회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방탄소년단을 제외한 아티스트들의 매출은 연평균 3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의 불확실성이 해제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최근 하이브 재팬에서 론칭한 일본의 보이그룹 '엔팀(&TEAM)' 외에 내년 4개 이상의 신인 팀을 선보인다고 예고했다.

또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이나 게임 사업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역 외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다. 플린트 신작 '별이되어라2:베다의 기사들' 퍼블리싱 계약 체결이 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2' 기간에 부산까지 내려가 직접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하며 이 사업에 힘을 실었다.

배우 이범수 "8년간 수업평가 95~100점...갑질 사실무근"



배우 이범수가 제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한대학교 감사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플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이는 "신한대 공연예술학부에서 이범수 교수 수업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의 사실이 아니"라며 "이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전부 전공 필수가 아닌 전공 선택 과목이다. 이 교수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신한대 공연예술학부 졸업 요건은 전공과목 65~70학점 이수이지만, 공연예술학부 전공 개설 과목은 111학점(62개 교과목)이다. 이 교수 선택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범수가 부인에 따라 반을 나눠 학생을 차별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신한대 공연예술학부는 대부분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분반한다. 공연예술학부 내 연기 전공뿐만 아니라 K-팝 전공을 포함한 다수 실기 과목이 분반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학년은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 반에 실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수나 조교

2014년부터 신한대 공연예술학부장 맡아

에게 요청해 면담 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하다"며 "이 교수는 분반이 이뤄지는 학기 초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범수의 본 학기 개설 수업과 진행 과정도 설명했다. ▲카메라연기1(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7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1(1학년 2학기 수업, 4시간×15회차(60시간) 강의) : 현재 21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3(2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6회차 추가 수업 진행 중 ▲연극제작실습5(3학년 2학기 수업, 3시간×15회차(45시간) 강의) : 현재 15회차 수업 진행 중이다.

"이 교수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수강 신청 기간과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이 교수 작품 활동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했다. 오히려 보강 수업과 추가 강의를 했다. 한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강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만 진행하고 바로 끝마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교수는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거나 일부 학생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초과해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배차 시간에 맞춰 자율 귀가 조치를 취했다"며 "담당 조교를 통해 관련 과목 수강 학생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나, 학생 개개인 일정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범수의 갑질로 인해 '학생 휴학율이 50%

이상이며, 군 휴학도 막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올해 2학기 연기전공을 포함한 신한대 디자인예술대학 휴학 결재 현황은 총 55건"이라며 "휴학생은 1~4학년 고루 분포 돼 있다. 군 휴학과 일반 휴학이 주된 사유다. 일반 휴학 사유로는 경제적 사정, 자격증 취득 준비, 어학연수, 질병 치료, 진로 고민 등 다양하다. 올해 1학기 기준 공연예술학과 군 휴학생은 26명이다. 휴학 최종 결재는 학부장인 이 교수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작성하는 수업 평가에서 8년간 95~100점을 웃도는 강의 평가 점수를 유지했다.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기술을 체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에도 비대면 영상 시청이 아닌, 실시간 줌(Zoom) 수업으로 연기를 지도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 등 긍정적 주관 평가를 꾸준히 받았다."

끝으로 "이러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 교수로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향후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이해하려 다가서는 교수가 될 것"이라며 "추후 예정된 신한대 감사에도 성실히 임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콘텐츠·게시글, 모욕적인 악성 댓글은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범수는 2014년부터 신한대 공연예술학부장을 맡고 있다. 최근 재학생 A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범수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범수가 부자 학생을 A반, 가난한 학생을 B반으로 나눠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조교는 이범수에게 욕설을 들었고, 일부 학생은 정신병원에 다니고도 덧붙였다.

학교에 제보했으나 이범수에게 이 사실이 새어 나갔다고 했다.

사이·아이브·제이홉, '37회 골든디스크' 출연

'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측이 2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은 14일 "아이브, 제이홉, 사이, 윤하, (여자)아이들, 비오, 빅나티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앞서 골든디스크 측은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스트레이 키즈, 트레저, 세븐틴 등 1차 라인업을 공개한 바 있다.

아이브는 이번 시상식에서 디지털 음원 본상 부문과 신인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다. 데뷔곡 '일레븐(ELEVEN)'과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LOVE DIVE)'에 이어 '애프터 라이브(After LIVE)'까지 흥행시키며 대세 걸그룹으로 발돋움했다.

음반 부문 후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은 올해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로 영국 NME가 뽑은 '2022 베스트 앨범 50', 미국 '롤링스톤'이 선정한 '2022 최고의 앨범 100(The 100 Best Albums of 2022) 9위 등 괄목할 성과를 이뤄냈다.

정규 9집 '싸다' 타이틀곡 '땃 땃(That That)'으로 인기를 입증한 사이는 음원 본상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올해 3월 발표한 '사건의 지평선'으로 역주행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윤하도 골든디스크를 찾는다.

'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내년 1월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서 개최된다. JTBC2·JTBC4에서 생중계된다.

스트레이 키즈, '2022 AAA' 대상...2년 연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AAA'에서 2년 연속 대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14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전날 일본 나고야 니혼가이시홀에서 개최된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2022 Asia Artist Awards IN JAPAN)'(이하 '2022 AAA')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해 올해의 퍼

포먼스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멤버들은 "정식 데뷔 전부터 스트레이 키즈 음악을 직접 작업하다 보니 올해의 앨범상이 더욱 값집니다. 우리 앨범을 프로듀싱하는 쓰리라차(3RACHA) 방찬·창빈·한이 있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또 스트레이 키즈 노래를 들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뷔 해에 신인상을 시작으로 작년 첫 대상, 올해 2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됐는데 무척 영광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2 AAA'에서 올해의 앨범상과 베스트 초이스상까지 2관왕에 오른 스트레이 키즈는 '오디너리(ODDINARY)'의 수록곡 '차머(Charmer)'와 최신작 '맥시던트(MAXIDENT)' 타이틀곡 '케이스 원포스리(CASE 143)' 퍼포먼스를 순차 선보였다.